

보도자료

2011년 6월 21일(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 송정수 과장(☎750-2130)
융합정책과 송규철 사무관(☎750-2131) gcsong@kcc.go.kr
이용자보호국 시청자권익증진과 양한열 과장(☎750-2690)
시청자권익증진과 이충범 사무관(☎750-2687) cblee@kcc.go.kr

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본격 추진

- 6.21(화), 「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추진협의회」 활동 시작 -

-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, 수화방송, 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관련 기술 표준화를 본격 추진계획
- 올해 말까지 다양한 방송매체 간 상호호환 가능한 공통 기술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며,
-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를 중심으로 방송사업자와 단말제조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「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추진협의회」를 구성하고, 제1차 회의를 6월 21일(화)에 개최 (TTA, 15:00)할 계획임

< 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추진협의회 개요 >

- o 목적 : 방송매체 간 상호호환 가능한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개발
- o 구성 : 방통위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/ 지상파방송, 케이블방송, 위성방송, IPTV, DMB 등 방송사업자 / TV, 셋톱박스, DMB 등 단말제조사의 표준화 담당자
- o 계획 : 1차 회의 개최(6.21, TTA), 올해 말까지 표준 최종확정

- 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및 편성비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
 - 「방송법」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과 세부 이행방안을 규정한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이 추진됨에 따른 기술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조치임
 - 현재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대부분 방송매체는 아직 장애인방송 기술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나, 상호호환이 어려운 서로 다른 기술표준을 사용하고 있어,
 - 일부 유료방송에서 지상파의 장애인방송을 재전송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어 왔음
 -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각 방송매체의 표준화 의장단 합동회의를 개최하여,
 - 올해 내에 모든 방송매체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장애인방송 기술표준을 제정하기로 결정·합의한 바 있음
- * 참석자 : 지상파, 케이블방송, 위성방송, IPTV, DMB, 데이터방송 등 6개 분야 표준화 의장
- 그리고,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실무논의를 위해 각 방송매체의 표준담당자가 공동 참여하는 「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추진협의회」를 구성하였으며, 앞으로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술표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
 - 더불어 지상파-유료방송 간의 장애인방송 재전송 등 원활한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통 기술표준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,
 - 방송사업자 및 단말제조사의 공통 기술표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「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고시(안)」에 반영할 예정임

- 아울러 방송사업자 및 단말제조사가 공통 기술표준을 쉽게 준수 적용할 수 있도록 ‘기술표준 활용 가이드라인’을 제작·배포하고,
- TTA에 표준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시험환경을 구축 운영하는 등 기술표준 준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임
-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술표준 제정 및 이행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,
- 이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
붙임 : 1. 장애인방송 기술표준 및 제도현황 1부
2. 장애인방송 공통기술 표준화 추진계획 1부
3. 「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추진협의회」 1차 회의 계획 1부.

끝

장애인방송 기술표준 및 제도현황

□ 기술표준 및 서비스 현황

- (지상파방송) 장애인방송 관련 일부 기술표준이 제정되어 있고,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방송을 서비스 중임

※ 장애인방송 편성비율('10) : 자막 96.0%, 수화 5.1%, 화면해설 6.0%

- (유료방송) 지상파의 장애인방송을 재전송하는 데 필요한 상호호환 가능한 기술표준이 확보되지 않아 재전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

□ 제도 현황 -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, 방송법 제69조

- (유형) 장애유형별로 자막방송, 수화방송, 화면해설 등 3가지로 구분

청각장애인	폐쇄자막	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글자로 전달
	수화통역	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, 몸짓, 표정 등으로 전달
시각장애인	화면해설	화면의 장면 및 자막을 음성으로 전달

- (제도개선 내용) 방송법상 현재는 권고사항이나, 장차법 개정예 따라 '12년(예정)부터 방송사업자에 장애인방송 서비스 의무화 및 편성비율 확대 추진

- 방송사업자별 세부 이행방안(의무대상, 편성비율, 이행시기 등)은 현재 논의 진행 중이고, 하반기 확정 고시예정(시청자권익증진과)

구분	현 행	제도 도입
강제여부	권고 조항	의무 조항
편성범위	재난·보도·선거·국경일 ·기념일 방송 중심	의무대상 방송사업자 및 단계적 편성목표 등 논의 중
제재규정	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→ 권고 → 시정명령 → 과태료	

장애인방송 공통기술 표준화 추진계획

□ 추진목적

-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및 편성비율 확대 관련 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조치로 기술적 이행방안 마련

□ 주요 추진과제

①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개발

- 지상파-유료방송-단말 사업자 등이 공동 참여하는 '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추진협의회'를 구성·운영 *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예정
* 현재 공통 기술표준 초안은 마련된 상태임

②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준수 의무화 추진

- '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고시'에 방송사업자의 공통 기술표준 준수 의무화 및 이행시기 반영 추진
* 의무화 대상 사업자 범위, 이행시기 등은 별도 논의예정

③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활용 지원

-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을 쉽게 활용·적용할 수 있도록 '공통 기술표준 활용 가이드라인' 제작·배포
- 기술표준 적합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TTA(시험인증연구소)에 개방형 시험환경 구축·운영

□ 추진일정

추진 과제	소관부서	완료시기
①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개발	융합정책과, TTA	12월
②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준수 의무화 추진	시청자권익증진과	12월
③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활용 지원	융합정책과, TTA	10월

「장애인방송 기술 표준화 추진협의회」 1차 회의 계획

□ 개 요

- 목 적 : 다양한 방송매체, 수신단말 간 상호호환 가능한 장애인방송
공통 기술표준 개발
- 참석자 : 방통위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/ 지상파방송,
PP, 케이블방송, 위성방송, IPTV, DMB 등 방송사업자 /
TV, DMB, 셋톱박스, 3DTV, 스마트TV 등 단말제조사의
표준화 담당자
- * 회의주관 : TTA 양방향방송 프로젝트그룹(PG804)
- 일 시 : 2011. 6. 21.(화), 15:00 ~ 18:00
- 장 소 : TTA 지하 1층 제3회의실

□ 진행 순서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5:00 ~ 15:30	○ 표준화 추진배경 및 필요성 발표	송규철 사무관 (방통위 융합정책과)
15:30 ~ 16:00	○ 표준화 현황 및 추진방향 발표 *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초안 설명	이은향 팀장 (TTA 시험인증연구소)
16:00 ~ 18:00	○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방안 논의 - 자막방송, 수화방송, 화면해설 방송	전 체